

# ‘수술비 5천만원 모금으로 生命 살리자’

## (주)꽃샘종합식품이 본지에 맡긴 200만원 전달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운동 뜨거워지고 있다”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애대워하는 일동면 기산리 김수길씨(47)를 살리기 위해 일동면 기산리 주민들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뜻에 본지 최효열 발행인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7일 오후3시 일동면사무

소에서 전달해 김수길씨에게 전달하고 완쾌될때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포천시 소흘읍 초가밭리에서 골과 국산차를 전문으로 지난 36년동안 생산해온 (주)꽃샘종합식품 이상갑 대표이사

가 맡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본지 최효열 발행인을 비롯해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남만우 일동지부장, 권귀자 이장과 유정희 기산리 부녀회장등이 참석해 김수길 씨 수술비 5천만원

을 함께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수길씨는 4년전에 다발성 뇌골수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돼 그동안 뼈가 사지 않도록 하는 약을 복용하며 어렵게 생활해 오고 있다.

이날 김수길씨에게 성금을 전달한 최효열 발행인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고통중에 있는 김수길씨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조만간 쾌유되기를 기원한다”며 “포천신문이 김수길씨 돕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금을 전달받은 김수길씨는 “여러분들의 도움에 몸뚱이를 모르겠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특히 일동면 기산리 주민들이 그동안 모은 600여만원과 오늘 전달한 200만원 등 현재 800여만원을 모금한 상태로 일동면 주민은 물론 포천시민들이 김수길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간에는 어김없이 본지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수길씨 돕기와 더불어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간 본지 불우이웃돕기 성

금 및 물품 접수내역은 포천시 소흘읍 초가밭리 소재 (주)꽃샘종합식품 이상갑 대표이사가 2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고 기탁했고 포천시 신음동 소재 제일사나 고남석·민영이 대표가 입장객이 들어올때마다 100원씩 적립해 모은 60만원을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본지에 기탁했다. 또 포천시탁구연합회 이기양 회장이 10만원의 성금을 맡기기도 했다.

이번 주간에 성금 및 물품 전달은 지난 2일 오전 10시 포천여자중학교 교장실에서 양용규 교감과 불우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1명의 학생에게 10만원씩 5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6일에는 본지 양주승 자문위원장과 최두열 전무이사, 본지 안병호 자문위원외 총무와 임경순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강옥자 주부명예기자단 감사와 소영숙 가산 천사어린이집 원장 등이 소흘읍과 가산면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했다. 이날 쌀은 20kg 20포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담당필요한 쌀을 전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생명과학 시대를 연다 ⑧

## 습관성 유산, 유전학 연구로 정복

불임은 결혼한 부부의 약 10~15%를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 부부에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서상 대(代)를 이어야 한다는 주위의 압력 때문에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된다. 또한 임신이 되더라도 그 임신이 소실되는 습관성 유산환자에게도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결혼한 여성에게는 더욱 더 감당하기가 힘든 일인 것이다.



백 광 현

포천생명과학연구소 대표, 생명의학연구소 소장, 분자유전학 전문의

유산횟수 증가하면 반복 유산될 확률 높아져

인간의 수정란은 약 70%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 임신초기에 소실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임신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된다. 습관성 유산이란 임신 20주 이전에 2회 또는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자연유산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습관성 유산의 빈도는 전체 임신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한번 자연유산을 경험한 임신부가 다시 유산할 확률은 15%, 2회 연속 후 다시 유산할 확률은 25%, 3회 연속 후에는 32%, 4회 연속 후에는 40%가 될 정도로 유산횟수가 증가하면서 반복 유산될 확률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프로게스테론 분비장애이다. 이 호르몬의 합성에 장애가 있거나 자궁내막의 호르몬 수용체의 부적절한 반응으로 착상과 임신유지에 장애를 초래하여 유산을 일으킨다. 해부학적인 요인으로는 자궁기형, 자궁내막 유착증, 자궁경관 무력증 등이 있다. 태아와 태반은 모체의 자궁에 대해서 외부 장기임에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임신유지가 가능한 것은 면역학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인자들이 모체와 태아, 그리고 태반 및 자궁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아-모체의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겨 착상장애와 초기임신의 유산을 유도한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습관성 유산과 관련 있는 유전자 발굴로 연구 박차

최근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기서 얻어진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학문들이 태동하고 있다. 임신질환의 유전자 연구 및 면역학적 연구도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하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분자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작용기전을 밝혀낸 다음, 치료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최근 세 포유전자치료연구소와 여성의학연구소 분자생식면역학연구소에서는 습관성 유산과 관련된 20여개의 유전자를 발굴했으며 이들을 위한 진단과 유전자 치료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송우초교 어머니회 아동보호시설 돕기



송우초등학교(교장 조상기)어머니회(회장 박상미)는 지난 3일 오후3시 송우리 소재 아동시설을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박상미 어머니회장은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어머니회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우초등학교 어머니회는 그동안 방학동안에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쌀을 지원하고 소아암 어린이들이 입원치료를 위해 1천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최효열 발행인이 김수길씨에게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포천여중 학생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양주승 자문위원장, 전유림 할머니)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강기림 어머니)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소영숙 천사어린이집원장, 박재운 어머니)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이연년씨, 양주승 자문위원장)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최희자씨)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안병호 자문위원외총무, 나순녀씨)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심희재씨, 최두열 전무이사)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최두열 전무이사, 유명길씨)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이정순씨, 최두열 전무이사)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안병호 자문위원외총무, 사동연 어머니)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주부명예기자단 강옥자 감사, 임경순 부단장, 임기옥씨)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좌로부터 이영호씨, 주부명예기자단 강옥자 감사, 안병호 자문위원외총무)

# 저렴한 가격! 최고의 서비스 (주)제일렌트카

## “출발 10분전 연락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소장 조 남 석

- 대리운전기사 수시모집 -

◇ 동부화재 전직원 보험가입 ◇

### 119 대리운전

080-6666-119

031-5412-119

대리운전전문 / 24시간 항시대기  
사고대차환영 / 각종승용차구비

Tel. 031-541-3107~8 H.P.010-8675-3108

소장 조 남 석

010-3192-1889